

LG전자, 윤성빈 등 스켈레톤 선수단에 3억 전달

지난 2015년부터 공식 후원

LG전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스켈레톤 황제' 윤성빈 선수와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단(코칭스태프 포함)에 3억원의 격려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격려금 전달식은 지난 2월 28일 서울시 중구에 있는 LG서울역빌딩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 최상규 사장,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강신성 회장, 윤성빈 선수 등이 참석했다.

LG전자는 2015년부터 윤성빈 선수와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을 공식 후원해오고 있다. 2016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원하며 스켈레톤 국가대표팀에 격려금 1억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 중구 LG서울역빌딩에서 열린 격려금 전달식에서 (왼쪽부터)봅슬레이스켈레톤 대표팀 이용종 감독,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 최상규 사장, 윤성빈 선수,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강신성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전자

스켈레톤은 엷드린 자세로 썰매를 타고 경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사진 얼음 트랙을 활주하는 스포츠로, 1928년 /정은미 기자 21cindium@metroseoul.co.kr



이상현(오른쪽) (주태인 대표가 허동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으로 부터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인증패를 받고 있다. /주태인

LS家 3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이상현 (주태인 대표) LS그룹 창업주 고(故) 구태회 명예회장의 외손자인 이상현 (주태인 대표)가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이다. 1일 LS그룹에 따르면 이상현 대표는 2월 28일 서울 중구에 있는 사랑의 열매회관에서 장애 청소년의 문화체육활동을 위해 1억원을 공익신탁 방식으로 기부했다. 이 대표의 부친인 이인정 아시아산악연맹 회장 역시 '아너소사이어티' 300호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상현 대표는 "나눔은 내 삶을 이끌어 준 원동력이었다"며 "장애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공연과 스포츠 경기 관람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데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머콕이 주관하는 기업 홍보물 경연대회인 '2017-18 머큐리 어워즈'의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현대차

현대차 기업 홍보물 경연 '머큐리 어워즈' 3관왕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머콕이 주관하는 기업 홍보물 경연대회인 '2017-18 머큐리 어워즈'의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강행물은 ▲현대차 그룹의 사회공헌 내용을 담은 '사회공헌백서' ▲현대차의 현황과 비전을 담은 '현대차 PR 브로셔' ▲현대차의 성과 등을 담은 '현대차 연차 보고서' 등이다.

현대차그룹 사회공헌백서는 부문 최우수상

인 금상을, 현대차 PR 브로셔와 현대차 연차 보고서는 각각 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1회째를 맞은 머큐리 어워즈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머콕이 진행하는 대회로 홍보물 부문 세계 3대 어워즈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출품작 중 독창성, 메시지 전달 능력, 디자인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매년 수상작을 발표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방통위원장, FCC와 방통규제 협력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8'을 방문해 아지트 파이 미국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을 만나 양국 방송통신 규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방통위

신점[神占] 운세 3월 2일 (음 1월 15일) 힐링운세 (www.healingunse.com) 060-800-8877

- 쥐** 60년생 휴식을 취하는 것이 건강에 길합니다. 72년생 입만 조심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입니다. 84년생 조그마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세요. 96년생 드디어 노력을 인정받습니다.
- 소** 61년생 주위에 반기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73년생 막힘이 많아 심신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85년생 자금지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97년생 과소비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호랑이** 50년생 강한 고집은 흥합니다. 62년생 매사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74년생 이성운은 좋지만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86년생 작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 토끼** 51년생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길합니다. 63년생 새 친구들을 사귀도록 하세요. 75년생 많은 사람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87년생 노력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 원숭이** 52년생 늦게나마 만사가 풀리게 됩니다. 64년생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76년생 직업을 바꾸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88년생 많은 사람이 귀하를 도와줄 것입니다.
- 뱀** 53년생 꿈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65년생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77년생 조상을 잘 모셔야 나쁜 일을 면할 것입니다. 89년생 식중독에 걸리기 쉽습니다.

- 말** 54년생 시기적으로 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66년생 여행을 떠나기 분 전환하는 것이 길합니다. 78년생 상사와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90년생 운전을 조심하세요.
- 양** 55년생 동북쪽으로 가세요. 67년생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입니다. 79년생 공로를 인정하여 포상을 구상하게 됩니다. 91년생 현재 벌이는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게 됩니다.
- 원숭이** 56년생 독서를 하면 길합니다. 68년생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어진 사람과 대화하세요. 80년생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길합니다. 92년생 주관을 확실하게 밝혀보세요.
- 닭** 57년생 금전운이 불리합니다. 69년생 성실한 자세로 나아가면 더 큰 이득이 보입니다. 81년생 유희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93년생 패배를 인정하고 왜 그런 건지 반성하세요.
- 개** 58년생 지병은 시간이 갈수록 호전됩니다. 70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오고 성취될 것입니다. 82년생 기쁨이 가득한 하루입니다. 94년생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 돼지** 59년생 병이 들면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71년생 병들기 전에 건강을 지키세요. 83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했습니다. 95년생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어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www.hongcafe.com)

	7	9	1	4				
4		3			2			8
1	2		3				7	6
6	4		6	4			8	1
		3	6					
	2				8			
1		4	2		9			

		2	3				5	8
3		5			4	2		
4			9				6	
	9			5			3	
	2				7			4
		1				6		5
5	8			8	1		9	3

스도쿠 정답

5	6	9	2	8	7	4	1	3
4	8	3	6	1	5	2	9	7
1	2	1	9	5	3	7	8	6
8	5	4	6	2	5	7	9	1
2	5	6	7	1	9	8	3	4
9	7	8	4	5	6	2	1	7
6	9	1	2	7	8	1	5	3
8	1	2	5	9	7	4	6	7
3	7	5	1	2	6	9	4	8
2	1	6	4	7	9	7	8	5
6	7	4	5	1	8	9	3	2
5	8	9	7	3	1	2	6	4
7	8	9	7	4	1	2	6	3
5	8	9	7	4	1	2	6	3

문제 제공: 보누스

김상희의四季



좋은 운세를 부르는 나눔

"네가 더 나은 세상에 살기를 바란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삶을 개선하는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 가슴을 울리는 이 많은 말들은 딸을 낳은 어느 부모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에 쓴 내용이다. 딸만이 아니라 더 넓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할 것이라는 다짐의 내용도 담겨있는 것이다.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와 부인 프라실라 첸이 갓 태어난 딸에게 보낸 편지인 것이다. 2015년 딸을 얻은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주식 99%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일정 금액씩 평생 동안 기부를 하겠다는 것이다. 비유며 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리지만 비유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본능과 욕망을 넘어서서 남을 위해 기부를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돈이 많아서 기부를 할 수 있고 가진 게 없어서 기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 가진 것과 기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남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에겐 선한 과보(果報)가 따른다. 선한 행동을 하면 좋은 열매를 얻고 약한 행위를 하면 그에 따른 쓰디 쓴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이는 인과응보의 줄임말인데 자신이 지은 업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를 말한다.

과거의 행위로 지은 업은 현재의 나에게 돌아오고 현재의 내가 지은 업들은 미래의 자손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누는 것은 좋은 업을 쌓는 일이다. 좋은 업을 쌓는 사람은 인생에 덕이 쌓인다. 사주팔자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평생 사주에 기대어 살 수는 없다. 사주가 좋다고 평생 좋은 기운을 받는 건 불가능하고 사주가 힘을 낼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한다. 덕을 쌓는 게 바로 동력을 만드는 일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듬어줄 때 그런 덕이 쌓인다. 다양한 형태의 덕을 평생에 쌓아 놓으면 좋은 기운이 되어 돌아온다. 세계의 이름난 부호들 중에는 마음을 다해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바마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버핏,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게이츠, 홍콩 청풍그룹 창업자인 리카싱 등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만의 삶이 아니라 사회의 빈곤한 계층까지 돌아본다. 따뜻한 거액의 기부가 그들에게 덕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것이 당연한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다.